



사단법인 |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

#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http://www.jts.or.kr>



**표지사진** : 연등축제 때 인도문화체험 코너에서 인도의상을 입어보고 즐거워하는 학생들

## JTS 통권 48호 2004년 7·8월

펴낸날 : 2004. 7.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류희원,  
최정연, 이미경, 김희수, 송하경,  
윤미옥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mailto: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http://www.jts.or.kr)

### 특집 |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 4 북한개발 기금 20억 모으기
- 8 제이티에스 북한개발위원회 사무장 손병기님을 만나고...

### 아프가니스탄 소식

- 11 아프간에서 우리가 정말 지원하려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 인도 등개스와리 소식

- 14 현재에 충실하면 그만큼 내 삶도 풍요로워지리라.

### 지금 북한에선

- 18 룡천역 열차폭발사고의 아픔을 함께 나누다.
- 20 룡천역 열차사고 어린 영령들의 기원

### 필리핀 소식

- 24 필리핀 현지 활동가와의 만남

### 따뜻한 이웃

- 28 어르신들과 함께한 즐거운 날들이
- 30 진정한 봉사

### 후원의 소리

- 33 굶주리는 아이의 심정으로

### 활동보고 및 안내

- 36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지원사업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현지활동  
국내소식
- 40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및 물품지원
- 42 룡천 특별후원금
- 46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 48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50 JTS 활동안내

#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북한개발 기금 20억 모으기**

## 라선시 개발 복구사업의 취지

- 2004년 4월 룡천역 열차사고는 우리민족의 가슴에 큰 아픔을 주었고 서로 대립의 장벽을 넘어 북한을 돕고자 하는 큰 마음의 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한 핏줄이니까 돕는다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 북한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대량 아사의 절박한 위기였던 96년부터 시작한 제이티에스의 모단체인 정토회 대중통일운동은 한끼굶기 운동·100만인 서명운동·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통일정진·통일돼지 키우기·릴레이거리캠페인· 룡천돕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 제이티에스는 97년부터 라선시 어린이영양식과 농업지원을 해왔고, 2004년 6월 현재 라선시 인민위원회와 합의 중에 있는 라선시 개발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함경북도와 북한 전 지역으로 북한 건설 사업을 해 나가려 합니다.
- 이제 우리는 ‘내나라’, ‘우리나라’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보다 더 주인된 입장으로 북한개발복구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 통일한반도를 위한 북한건설의 모델 만들기 바로 라선시에서 시작합니다.

- 라선시 내에 거주하는 16만 명 전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교육, 교통, 농업, 임업, 어업, 축산, 공업, 상업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개발합니다.
- 라선시 50곳 진료소에는 기초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준비되고, 시내버스가 운행되며, 협동농장 400정보에 비료, 비닐지원과 5천 농가에 농기구가 제공됩니다.  
초·중등학생 3만여 명, 탁아유치원생 1만여명에게 영양식 제공과 문구류, 놀이기구 등이 제공되어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조건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 1년간 (2004. 6-2005. 5) 소요되는 라선개발사업비는 총 20억원 규모이며, 20여개 분야 개발 사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여개 분야 개발 사업은 6 페이지 참고)

### 향후 3단계 북한 건설



## 개발사업 분야 및 후원목록

분류	항 목	세 부 내 용	금 액
보건의료	기초진료기기	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주사기, 링거줄, 소독기, 핀셋, 가위	15,000,000
	기초의약품	처치용품, 해열진통제, 비타민제, 소화제, 지혈제, 항생제	60,000,000
	기타약품	영양제, 구충제	62,000,000
	의료장비	현미경, 엑스레이, 혈액분석기, 엠브런스	48,000,000
농업	농자재	비료, 비닐	157,500,000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19,000,000
	농기구	호미, 낫, 곡괭이, 삽, 손수레, 쇠스랑, 갈퀴리	270,000,000
공업	의류재생 가공공장	공장시설, 업소용세탁기, 건조기, 재봉틀, 다리미	31,400,000
	농기계 수리공장	생고무, 28마력지차펌프, 내연고무, 28마력연유펌프	8,000,000
임업	묘목장	묘목장비, 종자	18,000,000
교육	문구류, 운동기구	스케치북, 크레파스, 노트, 연필, 아코디온, 신발, 공	163,500,000
	탁아, 유치원	시설개선, 영양식지원, 내복, 이불	809,000,000
	영양식 공장지원	전동기, 발전기, 분쇄, 혼합기	35,000,000
	고아원	급식, 문구류, 시설개선	20,000,000
공사	기계	포크레인, 불도저	115,000,000
교통	버스	시내3개 노선 운행	30,000,000
유류	기름	공장가동, 중장비작업, 버스운송시	120,000,000
운송	컨테이너	50여대 물품 운송	50,000,000
생활	수건, 비누, 치약	16만명 주민이 사용할 생필품	-



라선시 지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 표시

## 후원은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월 5,000원 이상 1년간 또는 1회에 5만원 이상을 후원함으로써 동참할 수 있습니다.
- 후원물품을 모아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약사는 의약품을 교사는 학생과 함께 문구류를 모아서 보낼 수 있고, 부녀회 동문회 등 소모임을 통해 물건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의류 후원을 받습니다 : 유행을 타는 옷은 피하고, 깨끗하게 세탁한 사계절, 남녀노소 모든 의류(속옷은 새것으로)를 모아보내면 됩니다.

입금계좌국민은행 484201-01-134875

예금주 : (사)한국JTS북한개발

## 제이티에스 북한개발위원회 사무장 손병기님을 만나고...



제이티에스 산하에 북한개발위원회가 4월 23일 발의된 이후 벌써 한분이 상근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월 3일 이후 상근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손병기사무장님(51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았다.

▶ 정토회와 인연이 오래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고등학교때 영남불교학생회 활동을 밀양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지도해 주셨던 분이 지금 생각하면 깨인 분으로 '생활불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종손으로 부모님의 바램대로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생활 불교는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정토가 커나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 이제는 자식들도 다 자랐고 스스로 밥벌이도 하게 되고 하여서 다른 미련이 없게 되었는데, 지난 1월에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정토는 지금은 젊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나이가 든다, 우리가 먼저 정토수련원의 아랫마을로 들어가서 살면서 이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도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맘을 닦고

청소년 시절 순수했던 희망대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 같이 시골에서 자라고, 다방면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일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해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분단상황과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1953년 8월 12일 생인데, 내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전협정(7.23)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양지역은 전쟁 당시 별 피해가 없었던 곳이어서 특별한 감회는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자랐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분단된 아픔을 느낀 것은 군대에 가서였지요. 전방에 있었는데 서로 비방하면서 왜 이리 대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 **지금 북한개발위원회 사무장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4월 23일 첫모임을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로 현재는 질 좋고 저렴한 물자를 구입하여 북한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그동안에 라선시의 어린이 영양식과 비료지원 등의 단순 구호에서 라선 지역의 사회 전영역의 개발복구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 및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동참하여 물자를 지원하고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서이지요.

5월 3일 상근한 후로 바로 룡천지원 용 밀가루 100톤을 시작으로, 라선시 초·중등학교에 지원한 문구류, 이번 6월 29일에 들어갈 쌀과 옥수수, 공장용 스테인레스 대형용기 등의 구입과 제작을 하였고, 1년간 라선지역의 개발복구에 사용될 다양한 물자의 구매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릴 때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아끼고 쌀 한 톨도 버리면 혼났고, 나는 지금도 아내가 쌀을 흘리면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구충제를 강아지한테 먹이는데, 북한에는 그것도 없어서 절절매는 걸 보면 맘이 많이 아픕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요즘에 북한에 보내는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정말로 질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세대는 못 먹고 못 사는 아픔을 압니다. 그리고 호미와 삽, 팽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 **사무장님 이외에도 참여하신 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박동만회장님과 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마산의 박근숙님은 대구 서문시장을 다니시면서 탁아유치원에 보낼 담요, 이불, 내복 등을 알아보고, 정종석님은 기계, 버스, 의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알아보고 계시고, 함용마님은 라선에 지원하라고 돋보기안경 200개를 내 놓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기술지도도 직접 가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중장비에 조예가 깊으신 양성운님과 창고를 알아보시기로 한 이수철님, 보건의료 분야지원을 알아보아 주시기로 한 김기진님 등 모두 다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중계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서울 근교에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후원 받았습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 **얼마 안되었지만 많은 일을 하셨네요. 남과 북의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현물지원이지만 머지 않아 기술교류를 하게 될거라고 보는데요. 그럴 때에 기술교류 1호로 북한에 가셔야 한다면요?**

북한에서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 달려갈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내가 라선에 갔었다면 그곳에 전기가 어땠고 전선이 어떻게 되어있고, 중장비는 무엇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계, 공구, 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을 터인데, 듣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조성되고 기차가 연결이 되면 너도나도 북한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러 갈 터인데, 우리 제이티에스 같은 생각을 가진 곳에서 나서서 먼저 북한의 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류도 좋고 통일도 좋으나 그 과정이 올바라야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단체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프간에서 우리가 정말 지원하려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

유정길 | 아프간 제이티에스 카불지원팀장

“다라 사카르다라 소라(마을공동체)에 25개의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마다 10명정도가 나와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라(마을의 모스크지도자) 마하마드 굴씨! 당신의 능력으로 마을청년들을 설득하여 그 정도의 동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25개 마을에서 하루씩만 나와서 작업을 하면 기껏해야 하루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10명이 됩니까 100명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하마드 굴씨가 지도자로 있는 칼라이 랄라이 마을이 먼저 시작하세요. 다음에는 칼라이 커자마을이 그 다음은 유니스켈 마을, 그다음은 비로켈마을,...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어렵지 않게 모래와 자갈 채취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커(Yes), 세이(OK)”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리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다라 사카르다라 마을 러즈다라쪽의 물레방아간 옆에 부서진 다리를 제이티에스가 시멘트와 철근을 제공하고 마을사람들 스스로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작은 수로공사를 위해 작은 토관을 제공했고 마을사람들이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사람들 스스로 참여한 과정을 보고 감동하여 본격적으로 큰 다리공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 3차례에 걸친 소라회의를 통해 마을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마을과의 협정서까지 작성 했지만, 처음에는 제안하는 사항을 언제나 항상 쉽게 동의하지만 나중에 달라지는 아프간사람의 성격으로 미루어 실제 실행될지는 불안했습니다.

공사를 순조롭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을사람들이 서로 쉽게 단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 함께 있지만 소련의 침공때 당시 소련에 부여했던 지도자도 있고, 내전 당시에 북부동맹군으로 혹은 탈레반군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와 갈등이 많아서 단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마을의 공사를 적극 추진해온 아레프는 이전 지역의 군사대장(코만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데 가끔 성격이 거칠어 과거 마을사람들과 싸우다가 3명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온 적도 있었고, 마을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른 마을의 대표들은 참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대조적으로 그 형 압둘바리는 제가 만난 아프간 사람 중에 이만큼 선함과 열정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마을의 교장선생님입니다. 실은 압둘바리에 대한 믿음이 마을일을 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5월 14일, 다리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대로 마을사람들이 작업을 하지 않아 기술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마을리더들을 모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마을마다 10명씩 돌아가면서 작업하면 전체 공사에서 기껏해야 마을당 한번만 작업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강조했고 약간 화를 내는 듯 마음없이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래야 긴장감있게 준비할 것 같아서 말이지요. 약속을 한 뒤 다음날 감

동할 준비를 하고 마을사람들의 작업 현장에 수박 10통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한창 작업광경이 보여야할 곳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사람중에 한명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두 그 장례식에 참여하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을의 한 사람이 도망을 가서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휴....

결국 이러저러한 곡절 끝에 다음날부터 3일간 작업을 해서 무사히 모래와 자갈 채취를 끝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아주 뿌듯했던 모양입니다. 마을의 공동노동제 도입 '하샤르' 로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을 비롯한 전쟁지역은 치안문제가 심각해서 현장에 살면서 마을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문을 통해서 작업감독을 해야하는 고충이 있다보니 마을사람들과 긴밀한 결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판을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리공사의 작업이 거의 50%이상 진척되고 있어 마을사람들은 기쁨으로 작은 흥분이 감돌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렇게라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만들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제이티에스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리나 학교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마을의 협동과 자신감, 참여를 통해 이후 더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자부심입니다. 23년동안 전쟁의 기억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중에 마을간 마을내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골을 잇는 일이 이러한 작은 공동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의 긍지와 자신감이 더 큰 일을 하게 만드는 심리적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NGO가 마을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지 그들에게 마음의 힘을 키워주고 스스로 자신이 희망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큼 큰 기여는 없지요.



## 현재에 충실하면 그만큼 내 삶도 풍요로워지리라

이재성 | 인도제이티에스 자원봉사자



미국적인 외모에 조용한 미소와 걸음걸이를 가진 분, 언뜻 보기에는 인도 혹은 아프간 사람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재성님.

이재성님은 2003년 3월 30일 인도 등게스와리로 자원활동을 떠났다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비자 연장 차, 지난 6월 1일 일시 귀국했다. 1년이 넘게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봉사하고 계신 이 분을 만나보기로 했다.

▶ 이번에 한국에 나오신 것은 비자 연장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 11, 12월 호에 실린 님의 글을 읽었는데, 혹서라고 표현할 정도의 기후조건이 건축 일을 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봉사를 하고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타아카데미에는 14개월 남짓 머물렀습니다. 지금 떠나기에는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등게스와리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사람들과도 친밀해졌습니다. 좀더 그 곳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싶고 한국에서보다는 그곳에서 잘 쓰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인력도 많을 때는 25여명 되었는데 지금은 저까지 6명뿐입니다.

▶ 수자타아카데미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인도와 이재성님의 특별한 인연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 처음 인도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최초의 배낭여행이었습니다. 문화적 충격이



컷던 만큼 좀 더 알고 싶고 그 매력에 빠져 인도를 짝사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번 정도 더 배낭여행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정치 없는 방랑의 길, 일종의 방황이었고 현실에서의 도피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식처를 찾듯...

고행 같은 여행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은 더없이 평온하고 안락했습니다. 그 뒤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인도만큼의 매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여행(자원활동)을 찾게 되었고 자원봉사도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단체를 찾던 중 정토회를 알게 됐고 지역도 인도여서 선뜻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20대에는 간판, 인테리어, 디자인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30대에는 10년여간 무대미술을 했습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 공연에 필요한 무대 세트를 제작하고 공연 전 극장에서 조립하고 공연이 끝나면 철거하고...

자주 지방공연을 다니고 가끔 해외공연도 동행했습니다. 무대미술을 할 때는 그전의 작업들이 도움이 됐고, 지금은 무대미술까지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등계스와리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했습니까?

수자타아카데미를 둘러싼 병풍 같은 돌산, 아기자기한 숲들, 초가집들, 이국적인 야자수 나무들, 그리고 먼지 폴폴 나는 시골길은 동양화를 보는 듯한 아늑한 풍경이었습니다. 피최좌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맡고 있는 일은 공사파트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공사자재를 가야에서 구입해오고 주문하고, 안에서는 공사 지시를 하고 새로운 작업계획 및 디자인, 그리고 시설전반을 관리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전동기를 틀어 각 건물에 물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전기를 공급합니다.

또 기술학교 학생들에게 제도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페인팅과 제도 두 과목을 했는데, 올해는 전공과목으로 제도수업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열악하여(기자재 부족과 학생들에게 생소한 과목이라서) 다소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청소년 노동학교 3학년들이 수자타아카데미 안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한 명씩을 배치하여 공사부위별로 좀 더 고단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작업상황을 체크하고 그때그때 도면을 그려서 보여주고 설명하니 학생들의 태도가 무척 진지해졌습니다. 첫 작품으로 기술학교 운동장에 세면장을 완성하였고, 두 번째는 숙소의 세탁실 외관을 산뜻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또 마을 개발에서 요청하면 자재 조달과 기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공사 방향을 논의하고 자재 선택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기뻐던 적은 노동자 퇴직금 적립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계획된 일이었는데 준비기간을 거치고 서류를 구비하여 올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주급을 받으면 그때 다 써버리고 또는 빌린 돈 갚느라 다음날이면 빈털털이가 되었는데, 이제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여가면서 노동자들의 즐거워하는

모습과 일을 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결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충분치 않지만 모두들 목돈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도 항상 옆에서 저축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노동자들 간의 다툼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카스트가 약간 달라 하



리잔(천민)과 양민간의 갈등 그리고 가끔 파트간의 의견공유가 제대로 안됩니다.

또 가끔씩 공사자재나 공구가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인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쉽습니다. 일을 할 땐 연구하고 합심하고 시설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기계가 자주 망가지고 수도꼭지는 자주 열려있고, 전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보니 평소에 스위치를 켜놓아 전기가 공급될 때 전구와 팬이 켜져 있어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종종 마을 잔치에 초대되어 음식을 대접받고 등산과 마을순례하는 일이 큰 재미입니다. 초대되면 귀빈대접을 받고, 힘들 땐 뒷산을 올라 한동안 땀을 흘리면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산을 한바퀴 빙 둘러보면,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공사 진행(마을 개발, 청소년 노동학교)도 체크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수자타아카데미나 등계스와리 지역, 기타 다른 지역에서 이재성님이 해보고 싶은 분야나 일이 있는지요?

건축도 괜찮지만 마을 전반에 걸친 마을 개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리 건설, 주택 개량, 의식 교육, 의료 교육 등등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곳에선 그런 전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도 미술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여건이 안 돼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수자타아카데미에서의 생활이 이재성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그곳에서의 생활도 이전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낯선 관습, 기후, 음식,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 사람들의 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입니다. 지금 벌써 그곳이 그리워집니다. 앞으로 1년 더 머물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현재에 충실하면 그 만큼 제 삶도 풍요로워지리라 믿습니다.

# 룡천역 열차폭발사고의 아픔을 함께 나누다

2004년 4월 22일 북한의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역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났다.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조사단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 76명을 포함해 모두 161명의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부상자는 13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5월 17일 현재) 뿐만 아니라 폭발의 규모는 인근 지역 600미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여서 재산피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제이티에스는 즉각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3차에 걸친 2억 8천여만원의 총 지원액의 긴급지원경과와 모금총액을 알아본다.

## \* 모금총액

■ 현재 총 모금액 : 총액 91,825,129원 · 26,799.62 달러

■ 모금 기간 : 4월 26일 ~ 6월 19일

- 1) JTS 본부 ..... 25,636,916원
- 2) 정토법당 ..... 46,576,200원
  - 서울법당 ..... 12,860,310원    • 해운대법당 ..... 12,631,000원
  - 대구법당 ..... 2,241,000원    • 대전법당 ..... 2,211,000원
  - 청주법당 ..... 3,451,440원    • 마산법당 ..... 7,770,000원
  - 울산법당 ..... 1,549,000원    • 광주법당 ..... 2,522,020원
  - 제천지회 ..... 530,430원    • 제주지회 ..... 810,000원
- 3) 좋은 벗들 ..... 9,194,419원
- 4) 해외정토법당 15,328.16달러 + 439,200원(거리모금 포함)
  - LA 정토법당 ..... 9,560달러    • 뉴욕 정토법당 2,298.16달러+ 100,000원
  - 워싱턴 정토법당 ..... 1,310달러    • 태국정토법당 ..... 339,200원
  - 필라델피아 ..... 2,160달러    • 일 본 ..... 11,471,46달러
  - 재일코리아청년연합 ..... 838.80달러    • 피스보트 ..... 10,632.66달러
- 6) 거리모금
  - 수자타아카데미 ..... 51,314원(1900.5루피)
  - 5월5일 어린이 날 모금액 ..... 9,927,080원



## ✳ 지원경과

- ▶4월 23일 | 룡천역 폭발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제이티에스는 JTS라선상주대표사무소와 연결에 있는 라선시대표사무소를 통한 긴급 지원을 결정, 중국 단둥과 국내에서 활동 전개  
 라선시 연길 대표사무소, 라선시 인민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민족화해협의회 앞으로 위로 전문 보냄
- ▶4월 26일 |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이지현 사무국장이 룡천 인접지역인 중국 단둥으로 급파되어 현지 봉사자(전금순, 조춘호)들과 함께 심양에서 1차 구호 물자 구입 시작
- ▶4월 28일 | 2차 지원물품인 PAT의류 11,000벌을 인천항 선적해서 단둥으로 보냄.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으로부터 감사 인사와 협조 요청 팩스를 받음
- ▶4월 29일 | 1차 지원물품 (이불 500채, 향생제 21만 6천정, 페니실린 5대, 스트레토마이신 5만대, 주사기 10만개, 집적관(링켈줄) 1만개, 체온계 5000개, 혈압계 100개) 신의주로 들어감. 북한에서 식량에 대한 긴급지원 요청이 있어 밀가루 100톤을 지원하기로 결정
- ▶4월 30일 | 2차 지원품은 룡천군 피해복구위원회에 넘겨주었고, 1, 2차 지원물품이 조선평안북도 룡천군 피해복구위원회를 통해 적십자 병원으로 전달되었다는 감사편지를 받음. 조선불교도연맹으로부터 한국에서 단둥으로 간 물품 중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며 2차 감사인사 팩스를 받음
- ▶5월 2일 | 박지나 본부장과 이지현 사무국장 한국으로 귀국.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모금운동이 활발히 진행됨
- ▶5월 3일 | 4월 23일 발족된 북한개발위원회 손병기사무장 상근 시작(룡천에 보낼 밀가루, 라선에 보낼 문구류 구입 등 업무 시작)
- ▶5월 5일 | 전국 11곳(서울, 부산 동래, 해운대, 대구, 대전, 청주, 마산, 울산, 광주, 제천, 정읍)에서 룡천 돕기 모금캠페인 전개, 283명의 봉사자들이 거리를 누비며 활동하여 9,927,080원이 모임
- ▶5월 18일 | 부산항에서 룡천 주민들에게 보낼 밀가루 100톤 선적
- ▶5월 24일 | 단둥 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 트럭으로 밀가루 100톤이 옮겨짐. 25일 해관을 거쳐서 신의주로 밀가루 100톤 운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큰물피해대책 위원회로부터 인수증을 받음
- ▶5월 31일 | 룡천돕기 긴급구호 모금활동 마감

## 룡천역 열차사고 어린 영령들의 기원

이지현 | 한국제이티에스 사무국장

‘평안북도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수백명이 죽고 학교와 가옥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대형 지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기차 충돌사고로 북한 룡천에 대형 재난이 터진 것이다. 갑자기 발생한 재난 때문에 화상으로 눈을 다친 어린이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안타까운 모습과 5,60년대에 보았던 주변의 풍경들이 북한의 어려움을 잊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JTS에서는 사고 이틀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나의 중국 파견을 결정하였다. 우리 두사람은 4월 26일에서 5월 2일까지 심양과 단둥에서 1, 2차 긴급 구호물자 지원 활동을 하였고, 3차 추



▲ 룡천역 폭발사고로 파괴된 집과 마을의 재건에 나선 주민들과 부상을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 어린이들



가 식량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는 5월 24일에서 26일까지 한차례 더 단둥을 다녀 오게 되었다.

정말로 한 달여간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하였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성금으로 물품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하였다. PAT(평안섬유)의 의류 1만 1천여점은 평안북도가 고향이신 회사의 대표님께서 ‘북한만은 절대 안된다.’고 하셨는데 룡천역 사고가 난지 5일 만에 룡천에 꼭 보내 달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여 3일 만에 신의주에 옷들이 전달될 수 있었다. 정토회의 각 지역법당에서도 연일 활발한 모금이 이어졌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루어진 모금캠페인에는 283명이 1천여 만원에 달하는 모금을 하였고, 미국 LA와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도 약 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여졌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가까운 일본의 재일코리안청년연합과 피스보트에서도 약 1만 2천달러를 모아 룡천돕기에 전달한 것과 인도제이티에스 수자타아카데미 천민마을 어린 학생들마저도 1, 2루피를 모은 돈 약 2천루피를 룡천돕기 후원금으로 보내온 것이다.

제이티에스에서 활동해온지 6여년되는 나에게도 이번 일은 직접 북한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처음 만나게 된 북한 분은 연길소재 나선대표부 김자현선생님이다. 여러나라를 다니신 단아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일처리도 깔끔하

▼ 룡천역 폭발사고 현장

였다. 처음 만나서도 전혀 낯이 설지 않았었는데 남과 북의 만남은 극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3차 밀가루 100톤 지원 때에는 중국 조선

족으로 제이티에스 라선상주대표사무소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 일을 만 3년째 해 주신 박현정선생님과 함께 하였다. 자신을 독립군의 후손이라 소개한 박 선생님은 조선을 구하는 일에 무척 보람 있어 하셨다. 그동안 전화와 팩스를 주고 받으면서 일을 해 왔던 터여서 직접 만나니 무척 반가웠고 구체적으로 토론해 갈 수 있어서 기뻐했다. 또한 심양에서 물건을 구하고 단둥에서 물건을 보낼 때 자원봉사를 해 주신 연길에 사시는 의사 전금순여사와 중국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준 조춘호선생님 모두 다 한결 같이 룡천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다만, 분단의 벽을 여실히 느끼고 안타까웠던 것은 압록강 앞에서 강 건너 북한을 바라보면서도 갈수 없고 가까이에 있는 룡천의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단동 해관 주변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북한복장의 초라하고 굳은 표정의 사람들 또한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된다고 했던가? 6월 15일 0시부로 비무장 지대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 체제를 찬양하던 대남,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한국전쟁 이후 서해상에서 남북함정이 첫 교신을 주고받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낀다. 이제 통일로 가는 길은 멀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듯 싶다.

이번 사건이 나자 북한은 국제기구에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사람들은 계파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룡천을 도왔다. 많은 분들의 후원동참을 보면서 룡천에서 죽어간 어린 영령들의 영혼이, 눈을 가린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지난 인생을 참회케하려 큰 희생을 치룬 듯한 마음이 들었다. 어린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아픔을 계기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형제로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염원해 본다.



## 필리핀 현지 활동가와의 만남



트렐과 도동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제이티에스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과 필리핀 정토회의 이원주, 노재국, 이종섭, 이규초, 황종일님이 제이티에스 사업장이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을 함께 방문하였다.

이번 기회를 빌어 필리핀 현지에서 제이티에스 지원활동을 하고 계신 트렐 보하씨와 도동 보하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두 분은 부부이자 함께 활동을 하는 동반자다. 트렐 보하님은 세이비어 대학 교수이고, 도동 보하님은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분은 모두 NGO 설립자이며 1986년에 열한명의 멤버들과 함께 'TOUCH' 라는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도동씨님이 회장을 맡고 있다. 도동님은 이 지역 농민조합과 함께 농촌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두 분 모두 농민으로 무공해, 천연재배에 관심을 갖고 경작도 하고 있다고 한다.

▶ 제이티에스 활동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도동 : 제이티에스와 함께 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특히 정부의 지원이 없는 원주민이나 무슬림 지역에서 제이티에스가 교육 문화사업을 펼쳐 나가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 등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이티에스 사업의 기초조사,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답사한 후 평가하고 제이티에스에 보고하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티에스와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취지와 목적들을 필리핀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이티에스가 행하고자하는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런 취지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서 더욱 발전적인 사업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 사회와 사회,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자재도 신청과 구매 등의 일과 건축기술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금 출납이나 기록등의 자금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제이티에스 사업을 하신지 일년이 되셨는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동 : 함께 일을 하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렐 : 오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하느님께 '할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

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답으로 제이티에스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엔 일을 하면서 재정문제나 지원문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제이티에스를 만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인생이 더 풍요워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잊어버릴 만큼 흠뻑 빠져있지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티에스와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고 기억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 아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동 : 민다나오는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아주 가난한 상태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트렐 : 이곳은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학교에 못가거나 영양실조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많고, 신발이나 제대로 된 옷, 책과 같은 교육자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한국의 제이티에스 후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동 : 제이티에스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원 봉사자들이 이 섬나라에 와서 마을 개발사업이나 마을 건설 등의 자원활동을 하면 좋겠고, 필리핀 자원 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트렐 :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NGO 활동을 해왔지만 규모가 작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이티에스가 우리의 활동을 많은 부분 도와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이티에스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취재 | 해외지원사업부 부장 김경희

정리 | 자원봉사자 양윤덕



# 어르신들과 함께한 즐거운 나들이

허연화 | 자원봉사자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은 처음이라 낯설음으로 시작한 복안리 어르신들과의 1일 자원봉사. 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도 자주 찾아뵙지 않고 있는데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위해 봉사한답시고 나선다고 생각하니 왠지 양심이 걸리는 감정도 함께 느끼며 집을 나섰다.

해운대를 출발해 복안리로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 한 분 두 분 차안으로 안내해 드린 후 우리는 양산 통도사를 향해 출발했다. 오랫동안 찾은 통도사의 수려한 경관에 봉사활동은 잠시 잊고 소풍을 온 듯한 기분으로 들떠 있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버스에서 내려드리고 난 후 나는 지팡이를 짚으신, 다리가 매우 불편한 듯이 보이는 할머니와 함께 스님 안내를 들으며 통도사를 구경했다. 그분은 비록 다리는 많이 불편해 보였지만 너무도 정정하시고 유머감각도 풍부하셔서 부축하는 내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다.



할머니들께서 사천왕상과 불상을 보며 얼마나 절을 정성스럽게 드리시던지 '아, 바로 이것이 우리 할머니들의 정성스런 신심이구나' 하고 절실히 느끼며, '나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어린 마음을 배워야겠구나' 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통도사를 떠나 광안 대교를 타고 달맞이 공원을 구경한 후 해운대 법당에 도착해서 정성들여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그곳에서 바쁘게 음식 시중을 드시는 실무자 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내 가슴이 너무 따뜻해져움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작된 풍물놀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그런 기운이 나오는 지 너무나 신명나게 노래와 춤을 추셨고, 장구에 꼬깃꼬깃 돈을 매달아 넣으시는 모습들도 재미있었다. 풍물놀이를 신나게 마치고 피로를 풀어드릴 겸 목욕탕에 모시고 갔다.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오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맙게 해주셔서, 처녀들은 정말 복 많이 받을거야' 라며 고마워 하셨다.

이번 봉사 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옴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께도 정말 더 잘해드려야겠다.

지난 4월 26일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제이티에스는 국내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시 복안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총 36분의 어르신과 1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찰순례와 풍물놀이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글은 행사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의 소감문입니다.

# 진정한 봉사

이지은 | 한양대 경영학과 3학년

사회봉사 신청 기간을 뒤늦게 알게 된 나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래도 국제기구와 관련 된 일을 하고싶다는 일념 하나로 집에서 1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서초동의 JTS 봉사를 신청하였다. 신청 당시에는 처음하는 사회봉사라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는지, 학교생활과 잘 병행해 갈 수 있을지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다. 또한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따로 하는 활동도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였던 나에게서는 사회봉사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본 결과, 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쁘고 힘들 때, 조금 더 바쁘게 살며 행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하는 생각과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 활동이 끝난 지금, 나의 이러한 생각과 믿음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JTS에서 나는 이것 저것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영문으로 된 국제 활동 사항 및 기사 번역, 홍보물 제작, 워드 작업, 엑셀 작업, 모금 활동, 연등 행사 활동 등 여러 일을 했다. 물론 이러한 일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 곳에서 자신들보다 남을 위해 사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일을 조금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매주 목요일, JTS에서 봉사하는 시간 만큼은 나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처음 보는 분들께 먼저 인사를 하고, 뒤에 나가시는 분을 위해 출입문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일을 끝내고 회관을 50m만 벗어나면 이러한 내 모습도 다시 슬그머니 내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다. 길을 걸으며 스치는 많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건조한 얼굴로 바라 볼뿐 전혀 관심도 없게 버리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지, 회관에서처럼 행동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곤 하지만 마음처럼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외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다. 식사를 하고 난 후 자기의 그릇에 물을 부어 마지막 김치 하나로 그릇을 씻은 후 그 물을 마시는 일. TV를 통해 몇 번 본 일은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마시기 전 지레 거부감을 느껴선지 첫 날은 상당히 참기가 힘들었지만 '자기가 먹은 음식의 맛을 그 물을 통해 하나하나 다 느끼게 된다'는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다음 번부터는 정말 그런 것도 같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단연 연등 행사 활동이 아니었나 싶다. 활동이 있었던 날은 날씨가 참 좋았다. 덕분에 나는 여름도 되기 전에 얼굴이고 팔이고 새까매져서 주위 사람들로 부터 어디 놀러 갔다 왔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했지만 말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자랐던 나지만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일본의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축제가 왜 서울에는 없을까 하고 항상 불만이었던 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연등 행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규모와 다양한 볼거리를 가진 큰 축제였다. 그리고 보면 JTS 활동은 이런 저런 크고 작은 것들을 나에게 무던히도 알려 주는 기회였던 것 같다. 연등 행사에서 나는 홍보물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인도 물품 판매를 하기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고 빈디를 붙여보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또한 재주 없는 솜씨로 아이들의 불과 손등에 그림을 그려주며 재미있는 하루 보내라며 손을 흔들며 주었다. 나의 서툰 그림에도 아이들은 예쁘다며 미소를 지어주었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고맙다며 모금함에 성의를 표시해 주셨다. 나의 작은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이러한 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었다.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일하느라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연등 행사를 구경하고 싶었지만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그 만큼 가장 보람되고 즐거웠던 활동을 한 날이기도 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즐기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처음이었던 만큼 100% 만족스러웠던 봉사 활동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경험을 선물해 주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학점 이수를 떠나서 대학생 할 속에 꼭 필요한 활동임을 굳게 믿기에 나는 남은 학기에도 여건만 주어진다면-아니 여건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 아니던가-계속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

이지은님은 2004년 봄학기동안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JTS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글은 이지은님이 JTS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신 소감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 굶주리는 아이의 심정으로

엄창수 | 정토회 광주법당 JTS 지원활동가



우리 부부가 JTS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2년 1월 인도 JTS 설성봉님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부터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선단체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지 못했고, 직접 전달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각종 단체에 대해 기부금도 거부하고 거리의 모금함도 애써 외면하는 대신, 길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을 찾아다니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설성봉 거사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JTS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신뢰를 느꼈고 신문에 나온 전화번호를 보고 JTS에 월 2만원의 기부를 약정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책자를 읽으면서 후원금의 100%가 그대로 전달되고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의 길을 가는 단체가 있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기왕 길을 만들어 놓은 단체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3개월 만에 후원금을 월 5만원으로 올렸고 다시 6개월 후에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아내(임지영)가 법륜스님을 따라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수자타아카데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토회가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한 사람이 마음을 내면 이토록 큰일을 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소시민적인 일상에 젖어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자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밤을 세운 토론 끝에 '법륜스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해보자. 그러나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 힘을 합쳐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후 우리 부부는 일상적인 삶을 접고, 삶의 무게 중심을 정토회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4월 처음으로 거리모금을 나가게 되었다. 충장로에서 모금함을 들고 서서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한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마조마하고, 차라리 어디가서 숨어 있다가 한 5만원쯤 통에다 넣어 가지고 올까하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모은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 등등,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1시간만에 모금한 돈이 8,000원쯤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후로도 모금을 몇 번 나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던 중, 2003년 5월초 정토회에서 발간한 북한에 대한 보고서인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우리부부는 그 책을 눈물로 읽고 토론한 결과 '우리 개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길을 찾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은 우리 능력의 한계 속에서 모금 밖에 없었다. 며칠 후 어린이날 모금을 하면서부터는 '내가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굶어죽는 어린이가 모금하는 것이고 나는 북한의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다' 는 마음으로 모금함을 들고 나갔다. 거짓말처럼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어색함도 느낄 겨를이 없었으며 오직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아이들이 안 굶어죽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단돈 100원을 주는 손도 너무 고맙게 느껴졌으며,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행복하세요'라는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지금은 비난하지만 장차 저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니까.' 그후 모금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닌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 나도 인도를 다녀왔다. 인도의 그 악착같은 거지들을 보면서 나의 자만심은 또다시 박살이 날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저 아이들처럼 저토록 악착같이 끈질기게 모금을 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난 정말 굶어죽는 아이의 입장에서 본적이 있었을까?' 이제 다시 모금함을 들면서 굶어죽는 아이의 입장도 버리고 내 입장도 버리고 그냥 해보려고 한다. 액수를 욕심낼 것도 없이 '그냥 합니다'.

##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자르하리 유치원 개원식

6월 9일 법륜스님을 비롯해 한국에서 오신 다섯 분의 축하 속에서 마을 주민 260명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열렸다. 마을 분들은 스님일행을 풍물과 춤으로 동구 밖에서부터 환영하였고, 제이티에스는 유치원을 건축하느라고 수고하신 마을 리더, 교사, 쉬람단 참석자들에게 옷과 비누를 선물하고, 마을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였다. 법륜스님은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셨다. 이로써 11개 유치원이 완공되었다.

### ●법륜스님과 1박 2일 숙박수련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법륜스님 지도로 스텝과 교사,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 기술학교와 청소년노동학교 학생, 마을유치원 교사와 리더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이 진행되었다. 스님께서는 제이티에스에서 뭔가 해

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각 마을의 교육받은 청년들로서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보살의 길을 가길 당부하셨다.

### ●수자타아카데미의 여름방학

수자타 아카데미가 6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여름방학을 하면서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건축파트의 기술자 6명은 김재령간사와 함께 6월 14일부터 25일 일정으로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로 건축기술 견학을 떠났다. 제이티에스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건축파트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로 일주일 임금을 지원하였다.

## 북한지원사업

### ●라선시에 쌀과 옥수수지원 및 영양식공장 설비교체

지난 6월 29일 부산항에서 라선시로 보낼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인 쌀 15톤과 옥수수7톤을 선적했다. 현재 중국에서 북한으로 쌀, 옥수수 등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한국산을 지원했다. 또한 영양식 공장 설비교체의 일환으로 영양식재료 혼합기 스테인레스통 3개를 한국에서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영양식 공장 근로자 18명에게 여름용 위생복과 신발을 지원했다.

##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현지활동

### ● 다라 사카르다라의 다리공사 진행

지난 5월 14일 착공을 시작하여 마을사람들의 참여로 모래와 자갈, 잡석메우기 등이 실시되고 현재 다리 공사는 약 반이상이 진척된 상태이다. 약 한달 후에 다리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마을회관 공사와 학교보수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 ● 칸다하르 사무실 설치, 난민 캠프 학교의 담장공사 및 교사들 식량지원

최근 아프간의 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각해지는 치안문제로 칸다하르 난민캠프에 들어가기 어려워 캠프의 교사들과 칸다하르 시내에서 몇번에 걸친 회의와 작업점검을 했다. 또한 난민캠프의 강한 바람 때문에 어린이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워 텐트주위를 둘러싼 바람막이 담장공사를 위해 시멘트와 벽돌을 지원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비스킷과 6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 어려워하는 교사들을 위해 식량을 제공했다.

또한 그동안 불안정했던 칸다하르에서의 사무실 여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작은 흙집을 구해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 ● 바미안 지역 학교의 문구 지원

6월 24일 법륜스님과 인도제이티에스, 아프간 활동가들이 함께 바미안지역을 방문하여 바미안 대불 앞에 있는 마르카즈 여학교와 레세주쿠르 마르카즈 고등학교에 문구류를 분배했고, 바미안 외곽의 5개 작은 초등학교에도 문

구류를 분배했으며 향후 바미안지역의 사업을 점검하고 활동방향에 대한 협의를 했다.

### ● 법륜스님과 박지나이사 및 인도제이티에스 활동가들의 아프가니스탄 방문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제이티에스의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과 해외사업본부장이신 박지나이사님을 비롯한 인도제이티에스의 활동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여 아프간의 작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칸다하르와 바미안 카불근교의 사업장을 둘러보고 격려하며 이후 사업방향에 대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다. 또한 필리핀 막사이사이상 본부의 요청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사마르 시마(Samar Sima)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고 이후 협력을 논의했다. 또한 코리카소장과 아프가니스탄 대사부부를 예방하여 제이티에스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NGO의 활동에 대한 협의를 했다.

## 국내소식

### ● 일본 NGO 피스보트와 재일청년연합에서 룡천지원 및 북한 후원금 전달



6월 18일 재일코리안청년연합에서 북한 룡천 사고에 대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공동대표인 송승재, 김봉양씨와 한일청년포럼 오사카, 동경 사무국장이 제이티에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한일청년포럼 일본내 행사에서 행한 모금과 티셔츠를 판매해서 모은 21,821엔을 전달했다. 또한 재일코리안청년연합에서는 라선결연금 231,000엔과 룡천지원모금 2차 지원분 26,556엔을 전달하였고 제이티에스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라선시 개발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일본의 NGO단체인 피스보트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잘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US\$10632, 우리돈 1천 3백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룡천사고 지원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일본에서의 지속적인 후원과 긴급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 ● 한국대학사회봉사자협의회 인도 봉사활동

한국대학사회봉사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 2차 인도 해외봉사단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인도 동게스와리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총 23명이 참가하는 이번 캠페인 의료팀과 교육, 공사, 드레싱, 태권도 등으로 분야를 나눠 마을을 돌며 진료하고, 교육과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문경수련원에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다.

### ● 김홍신 전 의원 2천여 만원 기탁

김홍신 전 의원이 지난 4월 말 질병으로 타계한 부인과 김화영여사의 장례식 조의금 1천만을 제이티에스에 기탁했다. 김화영 여사는 생전에 불우한 아동을 돕는데 관심이 많았으며 고인의 뜻을 기려 세계의 빈곤지역 어린이들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또한 김홍신 전 의원 선거사무실에서는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금 중 남은 비용 7,994,721원을 북한 룡천돕기로 후원하였고, 6월 28일 새로운 선거법에 의하여 국가가 보전한 선거자금 중 1천만 원을 JTS의 북한개발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

### ● 북한개발위원회 회의 개최

4월 23일 첫번째 모임을 시작한 북한개발위원회는 라선시 개발사업프로젝트에 필요한 물자 구입, 기술교류 등을 준비하고자 6월 8일 모임을 가졌고 7월 1일 2차모임을 가졌다.

사무장 손병기님과 운영위원 6명, 참관인으로 연길시에 거주하는 의사인 전순금님과 부서원이 모여 경과와 당면과제에 대해 의논하며 각자가 역할을 정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 ● 상근 자원봉사자 3명 활동 중!

1년 전 자원봉사를 했던 홍유식님과 후배인 임정우님, 간호장교를 하다 인도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조재정님이 북한개발기금모이기 팀에 합류하여 100일 동안 자원활동을 하기로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전 주인 5월 23일(일), 조계종 총무원 봉축위 주최로 조계사 앞 안국동 거리에서 불교문화마당이 열렸다. 제이티에스는 국제문화마당에서 인도문화체험코너를 마련하여 인도물품과 인도음식 판매, 헤나 찍어주기, 어린이에게 예쁜 그림 그려주기, 인도의상 입어보기 등의 행사를 마련하였고, 수익금 전액(2,389,030원)은 인도와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기탁했다. 인도에서 직접 갖고 온 의류와 장식용 그림, 전단향 부처님 등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인도 의상을 입고, 물품을 팔고, 홍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필리핀방문 민다나오 향후 사업 협의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이사장인 법륜스님이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기간동안에는 작년 6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우들을 위한 탈라카 특수학교, 산

이시드로 학교, 깔랑가난 학교가 준공식을 가졌다. 마을 주민들은 JTS에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필리핀 정토회의 이원주, 노재국, 이종섭, 이규초, 황종일님이 이번 민다나오 방문에 동행해서 앞으로 민다나오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주 동국대 부설유치원 JTS사진전 및 바자회 수익금 기탁

경주 동국대 부설유치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5월 29일 바자회를 열면서 제이티에스 해외사업장 사진 전시회를 함께 열어 수익금 중 일부와 후원금을 포함 50여만원을 기탁해왔다.

## ●여름학기 자원봉사자 교육

지난 6월 26일(토) 한양대 대학생자원봉사자 6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소개, JTS안내와 소감나누기 등의 교육을 받고 홍보부, 자원개발부, 실천사업부, 회원관리부, 해외사업부, 총무부 등 각 부서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4. 4. 21~ 5. 20까지 입금하신 신규회원입니다

## 북한어린이결연

정정희 211-11916-11	한 휘옥 111-03407-14	배종옥 111-03430-14
권기열 211-11917-11	허연화 211-11919-14	최진주 111-03431-14
최명주 211-11918-11	황창오 111-03409-14	LA정토희 111-03432-14
허연화 211-11919-11	반 칭 111-03410-14	김인영 111-03433-14
이정수 211-11920-11	강민우 111-03411-14	김상완 111-03434-14
최유정 211-11922-11	채수일 111-03412-14	신윤정 111-03435-14
조현관 211-11923-11	남장현 111-03413-14	정은주 111-03436-14
이기혜 211-11924-11	백혜진 111-03414-14	박종민 111-03437-14
민현정 211-11925-11	허성란 111-03415-14	조민구 111-03438-14
염선희 211-11927-11	조재정 111-03416-14	정원영 111-03439-14
김재홍 211-11928-11	민재은 111-03417-14	김정희 111-03440-14
윤명혜 211-11930-11	이동희 111-03418-14	정현아 111-03441-14
김은숙 211-11931-11	김정애 111-03419-14	송정숙 111-03442-14
김상순 211-11932-11	박성희 111-03420-14	김래경 111-03443-14
김삼규 211-11933-11	권미라 111-03421-14	

## 인도어린이결연

김형숙 111-03404-14	최은실 111-03424-14	허연화 211-11919-13
구영희 111-03405-14	박현숙 111-03425-14	
최성경 111-03406-14	박현순 111-03426-14	
임호섭 111-03407-14	김혜진 111-03427-14	
	김순덕 111-03428-14	
	김용순 111-03429-14	

## 아프가니스탄회원

## 인도결핵환자돕기

박성희 111-03420-15

## 특별후원금

(2004. 3. 21 ~ 5. 15까지 입금된 특별후원금입니다)

지명주 700,000	이성숙 20,000	김혜숙 100,000
허종두 200,000	신연숙 30,000	정세진 150,000
황창규 200,000	강은정 40,000	치광수 150,000
정순두 200,000	김영민 10,000	감산사 50,000
유애경 50,000	임소영 10,000	홍용재 20,000
조영훈 50,000	김혜림 50,000	양정순 100,000
조영욱 50,000	윤정자 20,000	김현정영가 150,000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4. 4. 21 ~ 5. 20까지 입금하신 신규회원입니다

조 현 미	36,000	최보림정	100,000	박 주 경	70,000
윤병득영가	100,000	박 영 병	1,000,000	오 정 숙	70,000
김보배영가	100,000	최 상 노	100000	박 슬 아	70,000
윤병식영가	100,000	조 성 우	100,000	박 슬 우	70,000
오 원 순	50,000	김 혜 례	25,0000	이 진 옥	100,000
승 훈	30,000	강 정 숙	12,000	함 용 마	1,000,000
배 인 환	200,000	왕 희 숙	50,000	이 창 화	100,000
박 철 환	1,000,000	김 기 흥	50,000	유 진	30,000
김 기 진	1,000,000	마 경 숙	100,000		
김 정 선	100,000	민 인 수	300,0000		

## 독일정도회특별후원금 (2004. 3. 21 ~ 5. 15까지 입금된 특별후원금입니다)

정 도 회 1,547,732

## 물 품 후 원 (2004. 4. 20 ~ 6. 17까지 입금된 특별후원금입니다)

- |  |                                   |
|--|-----------------------------------|
| 1. 동학사 양초14박스, 양말27, 팬티17, 런닝12, 빗43, 여행용비누38, 여행용치약37 | 10. 진미숙 이민용가방2                    |
| 2. 불법사 담고스님 의류6박스 츄리닝, 바지29, 티셔츠61, 잠바8                | 11. 무주상 여행용가방2                    |
| 3. 청암사 승가대학 의류1박스 티셔츠8, 바지2, 런닝1, 양말10                 | 12. 무주상 이민용가방2                    |
| 4. 광명당 안경콘택트(함용마) 돋보기, 안경케이스,안경수건 200셋트                | 13. 무주상 재활용의류 2박스                 |
| 5. 운문사 강원 사집만 티셔츠4, 양말4, 노트4, 찻술2, 책2                  | 14. 최청운 허리시계 40                   |
| 6. 김중주 원단 마대2자루 66키로그램                                 | 15. 정영희 이불15, 요15, 배게7            |
| 7. 해운대법당 수건, 비누 6박스                                    | 16. 노숙자 실 2자루                     |
| 8. 마산법당 수건, 비누 2박스                                     | 17. 김태선 의류 10,000여장               |
| 9. 울산법당 수건, 비누 2박스                                     | 18. 박동원 어린이놀이방 인형 1박스, 키보드, 기타    |
|  | 19. 권상민 원단 63롤                    |
|  | 20. 임순옥 노트 3박스                    |
|  | 21. 도관스님 바지5, 윗옷8, 내복2, 목도리2, 양말7 |



# 룡천 특별후원금

(2004. 4. 26 ~ 6. 19까지)

\* 현재 총 모금액 : (국내) 91,825,129  
(해외) US\$26,799.62

- 1) JTS 본부 25,636,916원
- 2) 좋은 벗들 9,194,419원
- 3) 정토 법당 총액 47,015,400원 (US\$15,860.16 별도)
  - 대구법당 ..... 2,241,000원 • 마산법당 ..... 7,100,000원
  - 해운대법당 ..... 12,631,000원 • 청주법당 ..... 3,451,440원
  - 광주법당 ..... 2,522,020원 • 대전법당 ..... 2,211,000원
  - 제주지회 ..... 810,000원 • 서울법당 ..... 12,860,310원
  - 제천지회 ..... 530,430원 • 울산법당 ..... 1,549,000원
  - LA정토법당 ..... US\$9,560 • 워싱턴정토법당 ..... US\$1,310
  - 뉴욕정토법당 ..... US\$2,298.16+100,000원 • 필라델피아 ..... US\$2,160
  - 태국정토법당 ..... 339,200원
- 4) 기타
  - 5월 5일 전국 거리모금 9,927,080원
  - 수자타아카데미 51,314원(1900.5루피)
  - 재일코리아청년연합 US\$838.80
  - 피스부트 US\$ 10,632.66

## JTS 본부 24,956,916원

정영정 10만원	이동범 10만원	이상연 3만원	최미대자 3만원	룡천동기 3만원	김애식 5만원
곽영술 50만원	조홍순 1만원	김지훈 5만원	노혜숙 2만원	이경중 3만원	고양한의원 50만원
한용녀 3만원	성주연 50만원	김지연 5만원	최광수 20만원	이진아 20만원	김우정 10만원
김상순 10만원	김현연 1만원	구영희 10만원	윤희근 10만원	이진우 5만원	임진아 5만원
김판건 5만원	박승자 50만원	권기열 10만원	이윤희 5만원	장한나 10만원	김응 1만원
김창숙 20만원	최소담 1만원	김정희 5만원	박지숙 1만원	장석환 5만원	왕귀연 5만원
강현숙 30만원	최하늘 1만원	곽영화 5만원	양윤순 5만원	변인환 5만원	정재섭 5만원
유상록 3만원	김영희 10만원	강수임 10만원	룡천사교성금 5만원	이제한 10만원	신정철 10만원
홍순철 1만원	신영희 10만원	강유미 5만원	박영숙 100만원	황일엽 3만원	이병현 4만원
박영미 8만원	김남영 10만원	성주연 23만원	김형수 5만원	마경숙 100만원	김미연 만오천원
김태갑 5만원	황창오 10만원	이상임 3만원	이보리 3만원	이봉재 20만원	서광석 6만원
색즉시공 100만원	백석희 5만원	정상희 3만원	박연옥 5만원	이서영 1만원	박봉진 10만원
윤영임 3만원	이근우-생애 5만500원	김환홍 3만원	이주화 10만원	김순자 2만원	전성숙 10만원
박남규 10만원	김은영 5만원	김중훈 5만원	장영우 5만원	김순덕 1만원	영신포동학교 2-1 28,100원
오한옥 10만원	김민주 5만원	김중연 20만원	권영숙 20만원	배용수 30만원	장옥희 10만원
사공창한 5만원	이선아 10만원	이숙희 100만원	이창우 5만원	김영숙 10만원	김성숙 1만원
211021404011 3만원	변기환 50만원	손미옥 5만원	정유진 10만원	김홍신후원회 4464,666원	조금연 7만원
배경환 3만원	허연화 30만원	최민철 1만5천원	이규태 2만원	제갈경숙 만오천원	장영우 5만원
고영숙 5만원	장정호이선주 10만원	임재현 1만원	이상옥 1만원	심지희 4만원	반월초 5-2 6만원
	박승우 10만원	필리핀노재국 100만원	류미향 2만원	문영봉 5만원	군문초등학교 20만원
	최경옥 5만원	박기추 10만원	박찬교 10만원	미래 4만원	김민조 3만원
		이성규 10만원	이진경 5만원	김완영 100만원	인드라망 135,000원



# 룡천 특별후원금

(2004. 4. 26 ~ 6. 19까지)

김태규 5만원  
김조현 3만원  
이은순 50만원  
김미혜 3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초등학교 전원생  
3,041,650원  
열린우리당광산구  
당원일동 50만원  
양민석 5만원  
이인수 5만원  
예수살리기공동체 8만원

## 서울법당 12,860,310원

김연숙 10만원  
김병준 10만원  
최윤정 2만원  
최윤석 2만원  
박선애 2만5천원  
정도환장단 20만원  
김혜경 3만원  
최정은 300만원  
강미영 1만원  
이영조 1만원  
임한솔 1만원  
임한걸 1만원  
임동필 1만원  
서울법당모금 231,880원  
김희수 100만원  
이순주 150만원  
서울법당모금 22만3천원  
장석우 3만원  
임순옥 20만원  
한울타리 50만원  
수요법회모금 20만원  
박규석 100만원  
심규원 1만원  
이영원 2만원  
이중애 1만원  
홍은동 1만원  
윤호남 1만원  
최금숙 1만원  
박동만 100만원  
이순희 100만원  
이창진영가 10만원

최누리회 10만원  
최경숙 5만원  
박영숙 5만원  
이혜정 5만원  
서울법당모금 201,130원  
저녁반정토불교대모금  
306,000원  
서울법당 모금 3만 1천원  
서울법당 모금 5만 1천원  
김숙자 10만원  
임성희야스영부부 30만원  
박병준 10만원  
경상대해양경찰학교모금액  
37,550원  
박석운 1만원  
신운실 30만원  
이규태 10만원  
서울법당모금 196,950원  
박을순 5만원  
이영규 10만원  
동국대피아집 26,800원  
민지혜 5만원  
권윤정 5만원

## 해운대법당 12,631,000원

유성종 2만원  
김미숙 2만원  
김명숙 5만원  
무주상 1만원  
최희선 1만원  
김정선 2만원  
허환숙 3만원  
박경창 1만원  
이현정 1만원  
송인자 1만원  
차순자 2만원  
김춘희 1만원  
박말순 1만원  
김경애 5만원  
양영민 1만원  
김태순 1만원  
김형진 1만원  
황순옥 1만원  
김갑숙 1만원  
김인숙 3만원

이정실 3만원  
권용순 2만원  
박춘임 1만원  
김경희 2만원  
김준희 1만원  
이경화 1만원  
이용옥 1만원  
이은희 15만원  
여미옥 3천원  
정재남 2만원  
무주상 1천원  
김민호 1만원  
김정희 2만원  
오은순 2만원  
선순원 5만원  
이두례 1만원  
오인숙 1만원  
김옥자 1만원  
천연자 1만원  
김철복 1만원  
강혜인 2만원  
김경희 1만원  
이철환 5만원  
정윤주 3만원  
김남숙 1만원  
왕희숙 5천원  
안미숙 1만원  
서은경 2만원  
윤희자 3만원  
송부순 1만원  
문정자 1만원  
장세화 1만원  
안덕희 1만원  
김영옥 1만원  
박문남 1만원  
고창무 15만원  
김정순 2만원  
정전숙 1만원  
최성희 1만원  
정수진 1만원  
정한정 5천원  
염윤희 5만원  
박희석 3만원  
이경녀 1만원  
박종순 1만원  
이은자 1만원  
안정자 1만원

문길년 2만원  
이경자 1만원  
이영옥 1만원  
김청애 1만원  
이해경 1만원  
황선량 1만원  
이순화 100만원  
최정선 3만원  
허애영 1만원  
민인수 1만원  
김진희 1만원  
성경란 1만원  
관음행 1만원  
박진수 1만원  
이말실 1만원  
이경희 1만원  
황순희 1만원  
채옥엽 1만원  
이정희 1만원  
강복용 1만원  
허성란 1만원  
강양중 1만원  
이근우 100만원  
정육선 3만원  
하선이 1만원  
조현미 1만원  
이기태 5천원  
허범수 6천원  
박윤희 2만원  
유화성 1만원  
오진숙 1만원  
이경운 2만원  
정영소 5만원  
김윤정 2만원  
남정숙 2만원  
박애자 1만원  
이종렬 1만원  
박은주 1만원  
홍연숙 1만원  
송유진 1만원  
정원근 2만원  
송경조 1만원  
정수걸 5천원

배명옥 1만원  
김애란 1만원  
박해자 1만원  
현정련 1만원  
무주상 11만원  
양정순 10만원  
천명희 1만원  
황태숙 3만원  
조은희 2만원  
오남순 1만원  
서하림 3만원  
김승태 20만원  
김서연 5만원  
최문숙 15만원  
최귀옥 10만원  
최귀옥 1만원  
유경숙 1만원  
김영선 3만원  
백상희 9천원  
무주상 100만원  
이문희 3만원  
정은미 1만원  
이귀숙 1만원  
박정희 2만원  
무주상 1만원  
김명숙 1만원  
남경봉 1만원  
윤은진 2만원  
김옥자 1만원  
류혜경 1만원  
백명선 1만원  
손진숙 3만원  
향유행 1만원  
손다선 1만원  
무주상 1만원  
이윤정 2만원  
박순옥 1만원  
허영자 1만원  
김문자 1만원  
이재영 5천원  
이상근 1만원  
박외숙 1만원  
고영순 1만원  
도양자 2만원  
이인순 2만원  
박수자 1만원  
김정애 1만원

강경화 1만원  
허재영 1만원  
최영현 1만원  
배준현 1만원  
김희숙 5만원  
김신자 2만원  
김옥련 2만원  
김옥련 1만원  
박길련 1만원  
김차순 1만원  
정현경 1만원  
오성숙 5만원  
황희정 2만원  
신재선 1만원  
안은숙 1만원  
홍미연 1만원  
정미옥 1만원  
임정순 1만원  
이규숙 2만원  
오승란 2만원  
송명희 1만원  
이정자 2만원  
정미례 1만원  
이정희 1만원  
신은섭 1만원  
무명 5천원  
조재련 2만원  
이동희 1만원  
박경숙 1만원  
김효경 1만원  
권근자 1만원  
김경조 2만원  
무명 3만원  
송명주 1만원  
김미숙 1만원  
고정희 1만원  
하삼선 1만원  
김지현 1만원  
최말순 20만원  
이백련 1만원  
손명숙 1만원  
김복순 3만원  
김영희 1만원  
김인복 1만원  
김희연 1만원  
최정숙 5만원  
안정화 2만원

# 룡천 특별후원금

(2004. 4. 26 ~ 6. 19까지)

정자영 1만원  
임남영 2만원  
손애숙 5천원  
김태순 1만원  
장옥순 1만원  
최해근 최정숙 자금통  
진경옥 1만원  
안병주 20만원  
최동호 10만원  
정종석 1만원  
김수민 5천원  
임옥이 5만원  
강희수 5만원  
이승우 1만원  
안미영 1만원  
김혜례 1만원  
정판봉 2만원  
박경관 1만원  
김두자 5천원  
김은희 5만원  
김지은 5천원  
홍정길 2만원  
이영옥 1만원  
김인만 3만원  
김학동 2만원  
우탁자 1만원  
김춘화 2만원  
정남옥 2만원  
이인숙 2만원  
심난이 2만원  
김양숙, 구기섭 1만원  
이혜순 1만원  
최미희 2만원  
이재왕 1만원  
옥유득 1만원  
이문수 1만원  
고수금 5만원  
무기명 1만원  
최정훈 5만원  
유정희 1만원  
옥둘련 1만원  
무기명 2만원  
정광자 1만원  
박계선 3만원  
김영자 1만원  
조협 1만원  
박진현 3만원

현영자 1만  
구포중학교 1학년 1만원  
이영희 2만원  
김명숙 4만원  
박철환 1만원  
박경은 5만원  
이상만 5만원  
심학순 1만원  
임재홍, 임기선 2만원  
이웅지 1만원  
최정숙 10만원  
김준자 50만원  
정현자 3만원  
김기래 1만원  
조정기 10만원  
김재순 20만원  
고춘복 3만원  
윤해주 1만원  
이숙희 1만원  
정성숙 3만원  
김파두마 1만원  
백점단 1만원  
백영희 1만원  
고원만성 5만원  
장영수 1만원  
장경숙 10만원  
윤혜선 5천원  
권규내 1만원  
백필순 5천원  
장금자 1만원  
현영실 3만원  
부부선재회 10만원  
김난새 1만원  
옥순옥 1만원  
송정순 1만원  
하경화 3만원  
박동원 3만원  
송형자 1만원  
박상임 1만원  
배정숙 1만5천원  
김재임 20만원  
김나경 1만원  
권영자 1만원  
김두임 1만원  
김동련 1만원  
이원석 1만원  
이정금 1만원

강덕련 1만원  
안춘미 2만원  
무주상 1만원  
무주상 3만원  
최희경 5만원  
정정연 1만원  
무주상 5만원  
이명철 3만원  
이우금 2만원  
이영숙 2만원  
이경민 3만원  
김인정 10만원  
곽경희 5만원  
이경혜 2만원  
성경숙 2만원  
이영자 1만원  
양만자 1만원  
이숙지 1만5천원  
김형길 2만원  
이현옥 1만원  
이점이 2만원  
이향순 2만원  
허명혜 3만원  
박은주 1만원  
법행정진회 50만원  
각해보살남 100만원  
책값모시 2천원  
송무애광 2만5천원  
이말희 1만원  
박명옥 1만원  
임희재, 임희민 5만원  
신미라 1만원  
윤미선 1만원  
이정표 1만원  
이현정 1만원  
이인표 1만원  
이성표 1만원  
명재호 3만원  
김수관 5천원  
강소정 3만원  
정영진 5천원  
무명 1만원  
윤숙경 1만원  
문봉준 1만원  
좌영자 1만원  
우경자 5만원  
한은숙 165,000원

김미자 2만원  
최기진 2만원  
이영옥 5만원  
최기철 5만원  
구포중학교 1학년 10만원  
이경예 3만원  
요나패밀리 30만원  
이금숙 5천원  
김말숙 5만원  
박호연 1만원  
나이연 5만원  
서정상 1만원  
민송서당 7만원

## 대구법당 2,241,000원

이성임 100만원  
불교대사찰순례 216,000원  
룡천희생자 49재 127,000원  
박난주 10만원  
김명선 2만원  
차상옥 5만원  
손명현 1만원  
심화실 1만원  
청안사 30만원  
김봉녀영가 20만원  
윤영순 1만원  
최경순 3만원  
송도영 2만원  
한옥주 2만

## 대전법당 2,211,000원

김남식 20만원  
신광호 20만원  
김유진 20만원  
박영민 10만원  
권소윤 10만원  
최순 1만원  
김민영 5만원  
김미혜 5만원  
원치왕 5만원  
오봉례 3만원

유재연 5만원  
김정숙 5만원  
이재성 1만원  
유인자 3만원  
원유진 5만원  
임세미 30만원  
김창연 10만원  
최미진 48,000원  
조명숙 3만원  
이창화 10만원  
한기화 2만원  
김희정 1만원  
배정인 3만원  
배운선 3만원  
배원준 3만원  
김승희 1만원  
김종덕 2만원  
유재한 2만원  
박재배 1만원  
김재남 1만원  
이재명 1만원  
이정선 1만원  
김현수 1만원  
무주상 2만원  
모금 213,000원

## 청주법당 3,451,440원

정상신 30만원  
정지혜 2만원  
정지수 3만원  
정지남 2만원  
정지철 3만원  
최덕해 3만원  
박규순 10만원  
이은선 10만원  
윤종한 100만원  
이정준 5만원  
쌍화보살님 기적 10만원  
연화경 3만원  
익명 119,000원  
정장영 20만원  
민한식 3만원  
김영아 5만원  
박준자 20만원  
혜은사 20만원

이점순 5만원  
서동우 5만원  
서동영 5만원  
최광수 5만원  
정남식 10만원  
김동수 10만원  
김진여 10만원  
김진조 10만원  
이순근 10만원  
민인자 1만원  
청정광 62,150원  
이창준 70,290원

## 마산법당 7,770,000원

강소정 5만원  
강준혁 5만원  
남정화 2만원  
정홍자 2만원  
최해성 2만원  
박근숙 10만원  
김기영 2만원  
이현숙 3만원  
김성우 5만원  
조순제 2만원  
무주상 3만원  
최재두 3만원  
정덕연 5만원  
표순전 1만원  
정영숙 1만원  
유애경 3만원  
노지오 1만원  
정필연 2만원  
황선호 5만원  
변형석 5만원  
최해성 2만원  
송귀선 3만원  
지은아 5만원  
유효원, 유경광 5백만원  
무주상 2백만

## 울산법당 1,549,000원

곽정희 1만원  
모금함 132,000원

# 룡천 특별후원금

(2004. 4. 26 ~ 6. 19까지)

울산법당 애·바다장  
수익금 192,000원  
정진우 5만 원  
정정임 1만 원  
이은주 1만 원  
모금함 74,000원  
김병현 10만 원  
축협 중앙지점  
직원 3만 원  
박선영 2만 원  
법당모금함 5만6천원  
서혜영 20만 원  
김경희 2만 원  
서수빈 1만 원  
김중숙 3만 원  
무주상 7만 원  
이정옥 2만 원  
강숙영 5천 원  
김용주 50만 원  
윤경화 1만 원

## 광주법당 2,522,020원

임영광 20만 원  
서예량 1만 원  
문혜원 1만 원  
엄창수 5만 원  
김현정 2만 원  
황은단 1만 원  
김문순 5천 원  
장선희 1만 원  
이선희 5천 원  
법당모금함 15만 원  
일과 놀이 150만 원  
이현근 24,700원  
박혜명식 1만 원  
심정자 10만 원  
김중완 10만 원  
선우중 5만 원  
장춘자 2만 원  
마지초등학교6-3  
38,300원  
비야중학교  
104,020원  
임영광10만5천원

## 제주지회 810,000원

강동근 10만 원  
강재연 10만 원  
강정숙 10만 원  
김찬집 10만 원  
임효진 5만 원  
김은숙 5만 원  
김정숙 10만 원  
김수진 10만 원  
고순현 3만 원  
강성자 3만 원  
허귀인 5만 원

## 제천시지회 530,430원

유윤식 5만 원  
모금함 204,000원  
통일새날을 여는  
자주청년회"여민"  
118,990원  
강다영 5천 원  
유다인 5천 원  
모금함 147,440원

## LA정도법당 US\$9,560

손미영 110불  
강보란 100불  
최희나 10불  
염지혜 60불  
이월준 100불  
이강중 200불  
강애나 2천불  
김소연 1천불  
성낙우 50불  
하인경 100불  
윤보적화 20불  
최경숙 100불  
정인자 100불  
mac hashiguhoe  
20불  
kevin ache 20불  
kim hyun sul 30불

wit revera 10불  
del boone 10불  
유정문 20불  
황영란 20불  
이정희 20불  
박신양 20불  
김태기 50불  
주경희 20불  
이종경 200불  
김현, 원우옥 50불  
김은희 100불  
이그레시아 100불  
박승용 60불  
박조애나 50불  
김은섭 200불  
배영 200불  
현병숙 300불  
이경택 100불  
김단(김두경) 20불  
김재준 20불  
서일원 150불  
정해사신도회 1,000불  
이태옥 100불  
김영남 50불  
기타 10만 원  
박선희 100불  
서일원 350불  
이승훈 100불  
김태우, 한송희 부부 30불  
양재이미 1000원  
무명 20불  
임이순 150불  
김상연 20불  
Bruce K shibuya  
50불  
김준자 50불  
이민영 50불  
이형환 100불  
무명 60불  
임병호 50불  
고한오 200불  
불심회 20불  
유영희 100불  
유대욱 50불  
박애자 200불  
장경숙 100불  
차영주 200불

## 워싱턴정도법당 US\$1,310

최근번 최태문 부부 100불  
최진아 100불  
민덕홍 50불  
차영현 100불  
서열빈 30불  
김국, 장무부 100불  
백태희, 유혜 부부 100불  
오영식, 윤사내 부부 100불  
김재철 (현세비니아 100불)  
Broad Rock Auto  
Service 20불  
Hyun ji kim 50불  
김태우, 한송희 부부 30불  
손정실, 손정애 부부 50불  
Dong Won lee &  
Chung Hee Lee 50불  
류승목 20불  
신은미 50불  
최영대, 김성순 50불  
최정원 20불  
최우원 10불

## 뉴욕정도법당 US\$2,298.16 +100,000원

김충진 100불  
최경숙 450불  
안재연 20불  
안수연 15불  
안재춘 15불  
김연문 50불  
김택수 200불  
김연순 500불  
이연순 81.50불  
김충진 100불  
이상범 150불  
김중진 10만 원  
임선희 50불  
이현주 50불  
차효순 100불  
sekntaia 10불  
이정인 100불  
계랄도 도레나 40불

거리모금 200,66불-  
원만행 20불  
조덕행 20불  
전신자 20불  
김기원 20불  
성해스님 20불  
미국인 남자 20불  
기타 66센트  
김혜련 40불  
김영민 20불  
MS.PAT 5불  
문영 1불

## 필라델피아 US\$2,160

백기호 문정윤  
(대련화) 340불  
임목단 20불  
김옥숙 20불  
류승목 20불  
고신옥 20불  
한영실 300불  
가네드클러너 50불  
최홍식 100불  
권춘희 100불  
오영환 50불  
김영미 50불  
남기훈, 남정옥 100불  
인자화이트 60불  
원각사스님 60불  
홍숙자 20불  
홍춘자 100불  
조남인, 조기숙 100불  
신봉하 100불  
김영 30불  
문수연 30불  
이우진 20불  
무명 500불

## 대국정도법당 339,200원

## 좋은벗들 9,194,119원

박선영 2만 원  
이광석 10만 원

홍영숙 1만 원  
류현복 10만 원  
조정주 5만 원  
정귀혜 1만 원  
도사춘관 발버덕 10만 원  
황선영 5천 원  
백향하 5만 원  
강산 779원  
김남순 100만  
박용훈 30만  
노귀남 5만  
김복순 1만 원  
빅길(광명산단) 50만  
배순덕 1만 원  
이주하 10만 원  
무룡사 10만 원  
김영신 1만 원  
김순호 20만 원  
이우사 10만 원  
박동주 10만 원  
부동산팀 28,580원  
서재하 1만  
이경훈 1만  
김태근 5만  
스윙동우회-  
크리에이티브 12만  
도서민 구석진 모금  
182,000원  
어린이도서연구회  
336만  
무기명후원 30만  
오순화 1만  
최문희 3만  
어린이날 남북한청년  
대학생 거리모금  
376,600원  
용천어린이들기  
'북한음식먹거리마  
당' 1차 수익사업  
798,000원  
용천어린이들기 북한음식  
먹거리마당 2차 수익사업  
1,443,500원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4. 4. 1. ~ 5. 31.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 광주

대림불가마사우나 35,780 도성스님 21,000 빅마트두암점 10,460 이선희 9,700 장선희 5,120 박희완 10,390 서울대림불가마사우나 23,140 임창수 42,700영진약국 12,550 옥가게\*퍼플\*17,750 장윤식21,740

## ▶ 대구

김상복 4,250 김순란 26,760 김양모 42,960 김인수 10,350 김인숙 32,760 김정목 21,980 노규환 21,750 노영숙 20,550 무명 59,560 문명수 25,200 박난주 50,000 배호석 21,300 변정민 23,010 손경희(수미광) 66,250 손경희 78,000심화실 54,840 신동출 28,610 안병부 30,440 안필수 13,450 윤채희 13,680 이동건 10,630 이상봉 22,120 이소정 12,560 이진용 23,880 이진훈 23,900 이영애 26,220 이준희 9,780 임기빈 9,090 정승원 15,780 정재훈 12,610 조옥분 31,070주미영 9,090 채성기 22,200 채정기 64,300 청인사 81,400 청인사 177,630 청인사 15,370 최경순 49,510 최정희30,750 최창주 20,420 황자수 21,230

## ▶ 대전

강한분 18,180 광역희 30,000 광원석 30,000 광태혁 30,000 김누리 20,320 김두례19,460 김순자 10,440 김우순 4,160 김은자 12,530 김정숙 13,890 김태풍 23,890 김창연 20,560 나필원 20,310 명창문 20,680 무명 13,560 무명 23,630 무명 1,560 무명 4,850 무명 3,950 무명 27,500 무명 4,580 무명 6,400 무명 2,970 무명 16,750 무명 7,800 민현6,000 박효선 27,100 신광호65,590 이재숙 13,210 정태영 11,450 제순희 22,100 송만수 29,600 심석영 37,040 차해원 20,400 장대훈 4,910 장선희 6,930 조명숙31,600 조명숙 16,410 조명숙 31,590 조명숙 26,430 조명숙 40,400 조명숙 3,320 조명숙 13,500 조명숙 14,370 조명숙 22,630 최민규 6,120 황귀숙 25,240 허승 9,290

## ▶ 마산

김명선 34,970 김봉순 4,360 김상우 10,420 김수인 22,960 김정심 23,510 김지훈10,250 김지훈 41,380 김지훈(자)37,020 김진남 20,980 김춘부 14,600 김춘부 20,100 김태숙 7,570 김해중37,150 노미야 29,000 노미야 26,840 노태곤 21,180 동국내화 64,000 동미마트7,950 무명 5,680 무명6건140,400 무명 11,900 무명4,500 박근숙 22,000 상상유통7,480 윤원중 26,050 윤준도 45,000 이정민 15,190 마산원협33번 중리점23,810 원협33번19,650 부영부식 9,930 서대덕 28,200 오승민,오선혜 7,770 옥강의원25,140 이재화5,260 이정식 29,500 이효순 23,590 장유신 53,750 홍출 25,150 주광숙슈스마을 6,900 진보라 9,990 진보라 6,060 최춘식 18,300 한미당나이트클럽 21,980 한울부패 20,540 황선우 7,380허성필 8,000

## ▶ 부산

강가령 30,300 강가령 28,200 강양중 11,700 광역희 56,440 김경미5,000 김경미 12,420김남순 29,800 김남순 36,000 김민지 10,990 김상조 19,640 나영숙 25,000 무명 19,900 무명29,700 무명 24,750 무명 107,000 무명 27,320 무명 19,400 무명 33,060 무명78,350 무명 24,020 무명 30,320 박점숙 23,560 박점숙 20,010 백정자 21,110 범문주 119,370 범문주 100,240 서창초등 33,500 심형택 23,900 윤정아 24,700 이미선 20,240 이종철 32,390 이진아 16,690이용성 3,320 이용성 3,000 정나영 12,330 정원섭 2,380 허성호 60,040

## ▶ 서울

강바람13,910 강재연 93,560 강재연 45,840 강재연 32,680 강재연 22,140 강줄기14,800 강애비 13,420 고두천 3,000 고미숙 2,000 고상현 8,620 고영녀 1,310 고춘자 11,990 고혁철 2,100 구연련30,530 국선도사당지원회원 47,910 김나영20,290 김란희 2,520 김명옥 510 김민복10,570 김민정 19,320 김범석 15,070 김복순 1,070 김성숙 2,000 김선옥4,500 김애숙31,920 김영범 21,430 김영선 19,210 김영희 3,320 김윤숙 1,770 김원주 1,800 김재석 4,830 김정규 17,700 김정숙 14,090 김조현 30,000 김종현 14,470 김종현 19,860 김지은 17,460 김진숙 1,000 김찬주 20,280 김창희14,720 김철환 9,820 김태균 21,100 김홍익 10,030 김현호 23,070 김희원 16,830 남궁형 98,550 남부농협 10,720 노선혜 43,100 노선혜9,980 노희경 126,050 노희경 162,280 대명희 1,000 묘덕법사님 54,530 무명 24,290 무명 800 무명 900 방혜숙 940 무명 950 무명 14,850 무명 30,800 무명18,330 무명 24,220 무명 1,000 무명 8,520 무명1,000 무명2,000 무명 2,000무명 1,600 무명2,700 무명 1,000 무명 1,300 무명 300 무명 1,000 무명 1,000 무명 1,400 무명 1,000 무명 2,610 무명2,700 무명 2,700 무명 1,400 무명1,200 무명 3,440무명8,690 무명 2,600 무명 2,300 무명 4,500 무명 2,450 무명 1,200 무명19,130무명38,370 무명 26,530 무명 28,430 무명 29,910 무명 11,410 무명 31,590 무명 31,190 무명 10,080 무명 7,370 무명 27,390 무명 19,840 무명 30,870 무명 22,020 무명 12860 무명 25,200 박영일 3,310 박경실 2,000 박경희 1,300 박덕환40,970 박미숙 20,060 박선화 4,890 박소영4,690 박영순 5,190 박영휴 101,420 박지민 14,970 봉녕사불서각110,000 박향순 1,700방영숙12,000 백승우 29,410 서울중산초교4-612,280 서진영 12,410 선병호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4. 4. 1. ~ 5. 31.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27,720 성준기 18,350 성진산 8,540 송명녀 1,020 송영애 1,240 송옥진 2,500 신순영 25,000 신희주 19,930 심연홍 50,000 안정현,안주현 9,010 안옥화 1,250 양명숙 14,370 양필연 10,660 양필연 32,130양필연13,510 여형주 27,450오금실 27,120오계월 1,000 오정국 1,100 오태양 어머니 46,850 오학순 17,560 오한옥(오해솔)17,110 오해봉 2,600 오해솔,오한옥 12,920 용화선원 31,800 유광중 37,180 유동근 50,000 유동근 50,000 유미경15,240 유미영 34,550 윤선재 22,080 윤성지 30,920 유영진 30,370윤정수2,850 이경희 18,980 이덕광 4,500 이동주38,670 이동민 27,060 이동주 42,180이영화2,010이상원13,350이상민,이동건17,450이상일1,400이순섭,이기갑145,000이상자69,360 이영자 18,860 이영순4,700 이영일 10,000 이은수 25,700 이정민 124,350 이정순 7,740 이정애 4,270 이철수 4,350 이춘선 5,100 이학숙 97,270 이현구 164,176 이해수 21,630 이해경 1,100 이해옥 90,000 임남화 34,310 장금자 47,060 장남원 15,100 장내현 24,780 장도연23,240 장영화 11,330 장영화 11,950 장예진 22,360 장정원7,540 장천섭 42,620 정미영31,100 정봉옥 500 정승호 23,220 정유자 16,740 정주호21,610정혜란100,000 조금숙 2,570 조정휘23,490 지원 57,470 홍직 2,600 초록마을영동점 30,640 최경순 1,120 최기진 26,080 최영숙 4,000 최영애 1,000 하철용 5,000 한성남 5,400 한정희 1,300 한혜자48,520 황기연 25,300 허순희 1,150 허영화 1,900 21세기복스 47,470

## 울산

강민석 1,400 권세현 1,250 김민섭 민경 16,730 김민희 58,600 김성윤 3,620 김숙자 29,350 김애자 37,890 김준호 13,590 김지수 34,970 김지은 25,370 김지호 10,000 고관수 54,190 김병삼 16,960 김나영13,680 정승은 30,460 정삼윤 30,190 정유성 25,780 김애자 62,150 정중숙 18,620 무명13,990 무명 57,020 무명 13,450 무명 25,100 김영훈 610 19,340 김한상 36,490 김한상 20,080 무명 830 무명 63,010 무명 12,990 무명 8,020 무명 2,060 무명 3,130 무명 2,970 무명 980 무명 2,510 무명 2,110 무명 20,270 무명 3,460 박성모 1,890 박성연 4,970 박성국 1,050 박신영 2,960 배소옥 33,070신수민 4,960 신한익 1,280 윤언순19,340이경선 19,460 이범상 300 이윤나 1,110 임희참13,330 장연수 780 전수정 5,500 전정희 30,990 전정희 28,290 정범기 1,350 최다윤 7,230 최성원 1,360 최상윤 540 최유라 3,740

## 제천

유윤식 52,990 예영주 13,680

## 청주

김동수 35,170 김민석 14,050 박종희 24,610 법등명 21,660 윤이나 21,080 이성매12,760 이숙기7,158 이영진10,560 이현정 9,990 임진묵 4,900 구자현 21,100 기홍진52,150 법륜행 62,770 서보기 9,310 손경희 24,950 오영규 155,000 이원근 9,860 정순옥14,380 지명규 146,870 최성진 18,410 최수진 16,970

## LA정도법당

LA정도돼지\$742 847,360

## 독일

박정숙 453,458 송정숙 205,006 유영택 123,657 윤용진 122,189 이세아 39,372 이명숙 67,883 전미자 211,794 정길순 217,118

북한어린이를 위해 통일돼지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거리모금 현황

2004.4.1 - 5. 31까지의 모금액입니다.

광주 173,160 대구 6,198,230 대전 1,791,790 마산 1,484,000 부산동래 802,180 부산해운대 844,160  
서울 4,774,984 울산 747,340 정읍 55,400 제천 316,280 청주 763,390

거리모금액에는 각 지역마다의 5월 5일 룡천등기모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4년 6월 20일 현재

# 라진·업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4년 6월 20일 현재



\* 회색으로 표시된 곳은 현재 지정탁자가 없는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 JTS 활동안내

## ▶ 인도 교육, 의료, 마을개발

- 수자타 아카데미가 위치한 동게스와리는 약 1만여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14개의 마을 유치원 1,200여 학생들에게 옷, 음식, 문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개의 초등학교에서는 400여 학생들에게 급식과 학용품, 교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소규모 기술학교와 청소년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주민들의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지바카병원은 매일 8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결핵환자에게 약과 식사를 제공하는 결핵퇴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동게스와리 16개 마을 1만여 주민들에게 식량, 의류, 담요 등 생활필수품 지원과 마을마다 핸드펌프를 파주고 있다.

## ▶ 북한 어린이 개발구호

- 라선시 탁아유치원 100여 곳에 0세-7세 어린이 1만여명에게 7년간 영양식품을 지원해 왔다. 100여개 탁아유치원의 낡은 장판과 이불 등을 교체해 주는 시설 개선사업과 라선시에 있는 50여개 진료소에 기초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지원한다.
- 라선시 협동 농장 400정보의 농업지원을 위하여 비료와 비닐을 지원한다.
-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 어린이 4,000여명에게 밀가루와 내복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

## ▶ 아프카니스탄 어린이개발구호

-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칸다하르 IDP(자국내 난민) 캠프 2만여 주민 중 어린이들은 1만여명이다. 이 중에서 5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텐트학교를 지원해서 문맹 퇴치를 하고자 하며 텀로스 주 1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문구류 세트를 지원한다.
- 카불 근교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여러개의 다리건설, 마을 진료소 건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 ▶ 필리핀 어린이개발구호

- 5개의 시골 마을에 11개 교실 건축과 한개의 도시에 장애인 학교와 기숙사 건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문구류 세트를 지원한다. 앞으로도 남부 민다나오의 소외된 원주민 마을과 회교도 마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가고자 한다.

## 후원금은

- ▶ **자동이체** 월 5,000원씩 1구좌 이상을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시거나 자동이체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 ▶ **지로용지** 지로용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월1회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시면 각종 안내책자 및 사업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